

□ '97 인디펜던트 록 페스티벌

'소란' 속의 록음악

대학문화는 왜 건전해야 하는지를 되묻는 이들은 꿈틀거리는 욕망을 쫓아가고 항상 새로운 음악의 시도를 즐긴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의 기준을 중심으로 개성표현을 말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록 페스티벌 '소란' 때 NAKED의 열광적인 공연모습(좌)과 미국 가요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최초의 록커 신중현(우)

끊임없는 저항의 소리를 질러라

형클어진 긴머리, 찢어진 청바지 그리고 열광하는 팬들. 록 음악을 대할때 생각나는 것들이다. 록 음악은 청중과 같이 호흡하고 스피커가 찢어질듯이 소리지르면서 또다른 탈출구를 모색하곤 한다.

록은 민중가요를 대신한 젊은 언어이고, 음악의 혁명이자 대중의 반란이다. 적어도 록 음악을 추구하는 젊은이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멜로디를 좋아하는 사회 분위기에 저항이라도 하듯 말이다. 또한 록이 의미하는 언어는 이해하기 어렵다. 세대를 풍자하고, 사회적 통념에 대한 도전적 강렬히 보여주는 것이기에 더욱 난해하다.

우리나라에 록 음악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미8군 무대였다. 이곳에서 한국 최초의 록커 신중현이 탄생한다. 신중현은 50년대 중반에 미8군 무대에 들어가 재즈, 스탠다드 팝, 리듬 앤 블루스, 로큰롤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면서 음악적 성숙기를 거쳤다. 이후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르러 한국의 록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붐을 누린다. 구창모와 배철수가 이

끈 '송골매', '신중현과 엽전들'이 대표적인 그룹 사운드였다.

80년대에 들어와 국내외의 수많은 헤비메탈 밴드들이 소개되었을 때, 그들의 공연에 열광하고 그들의 음반을 구입했던 주요 관객층은 고등학생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청중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밴드를 결성하고 음악적 경력을 쌓았다. 이 시기에 메탈을 표방한(?) 밴드들이 대거 등장했는데 시나위, 백두산, 부활 등의 등장은 우리나라에서 메탈의 전성기를 이끌어냈다. 이들은 90년대에 들어 대중음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90년대에서는 서구의 록과는 달리 다중적인 악기편성과 연주에 있어서의 폭발성보다는 현저히 보컬의 표현력에 더 의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록은 시대가 변화가도의 의미의 변화는 있지만 항상 존재해왔다. 그러나 요즘처럼 급속도의 록 열풍이 분적이 없다. 강력한 사운드, 고풍치는 비트의 록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젊은이들을 끌어당겼다. 각 캠퍼스 내에서도 록이 '저항의 음악'이라는 담론이 유행되고 있다. 그래서

천지인, 메이데이, 이스크라, 조국과 청춘 등 민중 록밴드가 생겨나게 되었다. 물론 이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진 것은 두말할 나위없다.

무엇이 이들을 부추겼는가. 대학문화는 왜 건전해야하는지를 되묻는 이들

록은 민중가요를 대신할 젊은 언어이고, 음악의 혁명이자 대중의 반란이다. 록이 의미하는 언어는 세대를 풍자하고, 사회적 통념에 대한 도전을 강렬히 보여주는 것이기에 난해하다

은 꿈틀거리는 욕망을 쫓아가고 항상 새로운 음악의 시도를 즐긴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의 기준을 중심으로 개인적, 개성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지난 6일 복지회관 1층 공연장에서 이 시대 젊은이들의 록 음악을

표현하고자 했던 인디펜던트 록 페스티벌 '소란'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소란을 넘어 소리, 소음, 침묵의 바다로'라는 제목을 내걸고 현실공간에서 탈피해 그들의 무한한 젊음의 에너지를 폭발했다. 대중의 또다른 기호인 록을 말하기 위해 NAKED, 리어뷰 미러, 강아지, 99, 노를루, 델리 스피이스, 엘로우 키친 등 많은 밴드들이 공연했다.

공연장의 분위기 또한 뜨거웠다. 처음에는 익숙치 않은 듯 진지하게 침묵을 지켰으나 곧 자신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욕망들을 들춰냈다. 록 음악에 박수치고 소리지르고, 심지어는 과성을 지르는 학생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현재 활동하는 언더그라운드밴드는 50여개가 넘고 대학생밴드들도 무수히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장소에서 록 공연을 자주 갖는다. 그리고 대학가 축제 한쪽에서도 록 페스티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들이 록 음악에 자연스럽게 다가서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언더그라운드 록 밴드가 자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대중음

악 시장에서는 항상 하위권을 맴돈다. 물론 일부 록 음악들은 대중들과 가까이 호흡하고 있다. 그만큼 록 음악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을뿐 록 음악을 추구하는 이들은 소수라고 할 수 있겠다.

"록 음악은 젊은이의 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대중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기성세대들의 부정적 시각때문에 공연문화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해 너무 아쉽다."고 말한 NAKED의 애기는 대학내에서 자리 잡고 있는 록 음악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직까지 학생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록 음악이 대학의 저항문화로 뿌리내리기는 힘들다. 그리고 다양한 공연문화를 통해 폭넓은 록 음악의 필요성도 중요하다.

고막이 터질 것 같은 앰프소리. 무대 바로 앞에서 음악에 맞춰 고개를 마구 흔드는 헤드뱅잉. 폭넓은 참여의식속에 록 음악은 자유롭고, 즐겁고, 젊음의 언어로 자리잡아 갈것이다.

(김동혁기자)

경희유산시리즈

①⑦ 중앙박물관

박물관은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연구하여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문화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의 박물관수는 대략 국립박물관이 22개, 사립·시립박물관이 68개, 대학박물관이 86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이외의 소규모의 개인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자료관 등 등록되지 않은 박물관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희학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앙박물관(1955. 10)과 자연사박물관(1978. 6)을 가지고 있다. 중앙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유물의 확충으로 현 위치인 중앙도서관 4층으로 이전하였다. (1966. 11. 12) 현재 중앙박물관은 고고역사관, 민속관, 시베리아관, 교사자료실 등에 전시된 2천 6백여점의 전시품을 비롯해서 모두 6



▲도서관 4층의 중앙박물관 모습

천여점의 귀중한 문화자료들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종합박물관으로 성장하였다.

의성 대리 고분, 암사동 주거지, 영암 용관묘, 경주 인왕동 고분의 발굴품, 전곡리 구석기 문화유적, 팔당댐 및 충주댐 수몰 지구 유물 등 수차에 걸쳐 발굴한 유물들이 있다. 빗살무늬 토기, 삼국시대의 오당, 철화백자, 정선의 부아암 그림, 한석봉 글씨, 송사부인 무속화, 목각불상 등은 한국 문화를 대표하여 국제 전시회에 수차례 출품되기도 했다. 문화의 세기가 될 21세기를 밝아 올릴 때, 우리 시점에서 박물관은 문화 창달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공간이자 항구적인 사회교육장으로 재탄생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의 문화 및 교육적 기능과 사명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중앙박물관은 경희문화를 전승하고 창조해 나가는 '문화의 요람'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오 일 환 (중앙박물관 연구실)

캠퍼스 예술인

□ 소리산하 회장 신승재(사회대 행정 2)군

“뽕뽕한 사회 바로잡는 노래하고파”

“외부공연도 좋지만 노래문화를 통해 대학내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죠. 요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이 많은데 가끔씩 주위를 둘러보았으면 해요. 물론 우리의 노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우리 사회는 세모위에 동그라미가 서있는 것과 같아요. 그 동그라미가 흔들거리며 불안해 하는 것처럼 사회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매일 흔들거리며 불안해 하죠.”

산수수업을 좋아하는 초등학생처럼 사회의 모습을 도형에 빗대어 말하는 소리산하 회장인 신승재(사회대 행정2)군.

노래를 통해 이렇듯 흔들거리는 사회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며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리산하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소리산하는 매년 봄, 가을 정기공연을 갖는다. 이번 가을 정기공연에서 처음으로 연출을 맡은 신군은 지난 3.4일 교내공연을 무사히 치렀다. 어려움이 많을거라 생각했는데 97학번 후배들의 도움으로 치를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 후배들이 마냥 자랑스럽기만 하다고.

대외적인 공연을 해볼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며 그는 너털웃음을 짓는다.

“외부공연도 좋지만 노래문화를 통해 대학내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죠. 요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이 많은데 가끔씩 주위를 둘러보았으면 해요. 물론 우리의 노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소리산하는 지금까지 12년을 이어오고 있다. 오래된 전통은 아니더라도 많은 후배들이 있기에 앞으로의 기대가 더욱 크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한번의 공연을 위해 2개월 가량의 연습기간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선배배간의 정을 느낄 수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는 그들의 노래를 음악성 자체로만 듣지 않기를 부탁한다. 노래가사의 뜻을 되새기며 들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노래는 단순한 흥얼거림이 아닌 강인한 힘을 지니고 있다”며 그는 굳게 확신한듯 말한다.

소리산하의 뜻처럼 사람들 마음 깊이 울려 퍼져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한다.

(지은정기자)

문화 단신

위대한 시인 김삿갓의 시 세계를 통해 그의 파격적인 삶의 발자취를 추적하여 한 시대를 살다간 시인의 생애를 탐미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극이다.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한다. 문의는 서울예술단 523-0984이다.



김경호 콘서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로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록커 김경호. 이번 라이브 콘서트는 12월의 대형 콘서트를 앞두고 준비하는 만큼 내용적으로

로나 연주실력으로나 기대가 되는 공연이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대학로 라이브극장 2관에서 열린다. 문의는 라이브극장 766-5417이다.

생활속에 향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버튼만 누르면 헤드폰을 타고 흐르는 음악.
티끌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소리지만
때로는 낮은 LP판의 투박한 소리가 그림습니다.
한번쯤 그 그리움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향기로 마시는 음악 한잔



CD와 테이프에 밀려 있던 낮은 LP판도 꺼내고,
텐테이블 위의 먼지도 닦고...
'지직.' 소리와 함께 첫음의 미세한 떨림이
온 방으로 퍼져갈때...
커피 한잔과 함께라면 더욱 좋겠죠.

무덤덤해진 일상속에서 이런 작은 감동 하나
찾아낼 수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이 번거롭지만은 않을 겁니다.
선물과 향기가 어울려 낯익은 음악에 곁들였던
뜻밖의 추억이 떠오르는 시간.
무심코 지나쳤던 소리들이 감동으로 느껴지는 시간.
없고 싶지 않은 생활의 단편들 -
그 자리에 언제나 향기로운 커피 한잔.

생활속에 향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동서식품

http://www.dongsuh.co.kr Hitel:GO MAXIM